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일자리 공고 숫자, 예상치 상회... 두달만에 9백60만개
- Bloomberg: 10월 미 민간 일자리 예상치에 못미쳐... 11만3천개
- WSJ: 연준 오늘 금리 인상 여부 결정
- WSJ: 경제가 좋은데 미국인들 왜 우울할까?

[JP모건 보고서]

- JP모건: 계속 분열된 지정학적 상황

[미국 금융]

- Bloomberg: 달러화 최고치 근접

[뉴욕시]

- NYT: 이주 아동 등 뉴욕시에 홈리스 학생 11만9천3백명

[부동산]

- CNBC: 집 사기 힘들자 변동모기지 수요 거의 10% 상승

[반도체]

- WSJ: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활력 되찾기 시작하다

[자동차 파업]

- WSJ: UAW 파업 승리,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애플, 건강 관리 혁신적 청사진 발표
- Bloomberg: 위워크, 이르면 다음 주 파산 신청 예상
- WSJ: 프라다, 모든 제품군에서 높은 수익 달성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 Openings Unexpectedly Rise a Second Month to 9.6 Million

미 일자리 공고 숫자, 예상치 상회... 두달만에 9백60만개

- 미 일자리 공고 숫자가 9월에 두달째 연속 증가했다.
- 연방 노동청이 오늘 수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에 일자리 공고수가 하향 조정된 9백50만개에서 10월에 9백60만개로 증가했다. 고용이 늘려 해고는 줄고 있다는 의미다.
- 전체 고용에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비율인 이른바 이직률은 2.3%로 계속 같은 비율을 유지하며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 이같은 완만한 이직율은 미국인들이 현재 노동시장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직할 자신감이 낮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Companies Add Fewer Jobs Than Forecast, ADP Data Show**10월 미 민간 일자리 예상치에 못미쳐... 11만3천개**

- 미 기업들의 10월 일자리 총원이 기대치에 못미쳐 구인 수요가 줄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관련 ADP 조사에 따르면 10월 일자리 총원이 11만3천개. 전월인 9월의 경우 2년만에 성장세 가장 작았었다.
- 사업장 규모와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했는데 주로 교육, 의료 서비스, 무역, 운송이었다.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을 주도했던 레저와接客업의 경우 일자리 증가가 적었다.

Bloomberg 기사

WSJ: Fed Officials Debate Whether They Have Raised Rates Enough**연준 오늘 금리 인상 여부 결정**

- 연준은 오늘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 이후 둔화된 인플레이션이 수그러지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이나 내년에 연준 관리들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
- 또한 연준 관리들은 최근의 급격한 국채 수익률이 추가 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 있을 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오늘 연준은 회의 이후 2시에 정책 결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월 의장이 오후 2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WSJ 기사

WSJ: The Economy Is Great. Why Are Americans in Such a Rotten Mood?**경제가 좋은데 미국인들 왜 우울할까?**

-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지난 8월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가 미국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40% 안팎. 그의 경제 처리 방식은 지지율이 더 낮다.
- 물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도 있다. 특히 물가의 절대적인 수준이 몇년 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 여기다 정치적 양극화도 한몫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자기당이 권력 장악하면 경제가 좋을 거지만 반대의 경우 경제가 나쁘다고 답했다.

- 특히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률이 과반수가 훨씬 넘는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부시나 오바마 대통령때보다 훨씬 낮다.

WSJ 기사

[JP 모건 보고서]

JP 모건: A fragmented and fractured world: Geopolitical resilience remains elusive 계속 분열된 지정학적 상황

- 국제 투자자들은 내년도 미국 대선을 지정학적 리스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더 좋다.
- 그러나 이번 연방 하원의장 선출의 드라마틱은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여전히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고, 양당 지지가 치열한 접전중인 주들의 경우 (swing states) 트럼프가 경제에서 더 낫다고 보고 있다.
- 연방정부 셋다운은 피할수 있거나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양당 테이블에 단기 지속 결의안(CR)이 있고, 신임 하원의장이 허니문을 즐기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 시진핑과 바이든의 APEC 회의에서의 만남은 지정학적 갈등의 주요한 돌파구는 없겠지만 미중 양측 대화를 개선시킬 의사를 보이고 있다.
-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응하는 방식이 일관성이 있지 않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파트너 또는 경쟁자, 라이벌로 볼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은 향후 5년간 일대일로에 1천억달러 투입을 약속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국제 개발 및 해외정책 전략에서 신흥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폴란드에 진 유럽 연합 정부가 선출되어 유럽통합에 긍정적이며, EU의 마지막 헝가리 독재 정권에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 (유럽) 정책 결정자들은 분열되고 균열된 세계에서 재정 지출과 부채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시장 리스크를 지닌채 재정 통합을 강요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

JP 모건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Dollar Is Near to Its Peak 달러화 최고치 근접

-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이달 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횡보하고 있다.

- 월가는 달러화의 종말을 여러번 선언했으나 달러화가 더 오르고 있다.
- 7월에 달러화 상승의 끝을 알렸던 하락세는 금방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최근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한 안전한 피난처에 대한 욕구가 달러에 대한 수요를 부추켰다. 어제 화요일에는 일본은행이 국내 채권 수익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상승했다.
- 그러나 일부 투자은행 전략가들은 “달러가 이미 수익률 상승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미국 경제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NYT: A Record 119,300 New York City Students Were Homeless Last Year 이주 아동 등 뉴욕시에 홈리스 학생 11만9천3백명

- 미 남부 국경선을 통해 이주민들이 미국과 뉴욕시로 유입되면서 지난해의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는 홈리스 학생들의 숫자가 최고치인 11만9천3백 20명으로 확인되었다.
- 올 여름의 경우만도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신규 공립학교 등록학생수가 3만명을 넘었다.

NYT 기사

[부동산]

CNBC: Adjustable-rate mortgage demand jumps nearly 10% as buyers struggle to afford housing market 집 사기 힘들자 변동모기지 수요 거의 10% 상승

- 30년 고정 평균 모기지율이 7.90%에서 최근 7.86%로 약간 감소했다.
- 그런데 이른바 변동모기지인 ARM은 6.77%로 하락함에 따라 이의 대출은 지난주에 거의 10% 상승했다. 1년만에 최고치다. 그리고 이는 전체 모기지 신청건수의 10.7%를 점유했다.
- 한편 전체 주택 구입 모기지 신청자는 지난주에 1%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22% 줄어든 숫자다.

CNBC 기사

[반도체]

WSJ: After a Boom and Bust, the Chip Industry Is Regaining Its Health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활력 되찾기 시작하다

-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일부 분야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불황을 벗어나고 있다. 근래에 삼성과 TSMC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자신감을 내비쳤다.
- 세계에서 가장 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은 어제 화요일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객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가 떨어지고, 반도체 생산 감축이 효과를 보이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나,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한다.
- 반도체 기업 컨설팅 기업인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ies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수입은 올해 1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내년에 11% 이상 회복해 그 규모가 5천5백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보고 있다.
- 이번 회복은 빈번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반도체 시장 주기 속에 가장 최근 변화로 보인다. 반도체 시장은 팬데믹 첫 1년 동안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호황을 누렸으며, 그 이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른 요인들로 인해 다시 불황을 겪었다. 이제는 다시 상승주기를 밟고 있는 것이다.

WSJ 기사

[자동차 파업]

WSJ: UAW Deal Shows Unions Are Winning. How Long Will It Last? UAW 파업 승리,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 UAW와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업 간의 잠정적인 합의는 협상에서 UAW를 더 공격적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파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가 버텨낸다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 많은 경제학자는 만약 미국의 경제 성장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한다면, 노조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힘의 균형이 경영자에게 돌아갈 것이라 전망한다.
- 2020년 팬데믹의 파급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근로자들이 기업에 더 많은 임금과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지렛대의 역할을 했다.
- 그러나, 듀크 대학의 경제학자인 Matthew Johnson은 파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는 많은 경제적 요소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 많은 전문가는 지난 20년 이래로 금리가 가장 높은 지금 시점에, 앞으로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들고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 연준이 현재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 Johnson은 앞으로 노동 시장이 침체된다면, 기업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의 협상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Bloomberg: Apple Has Plans to Eventually, Maybe Revolutionize Health Care****애플, 건강 관리 혁신적 청사진 발표**

- 애플의 CEO인 팀 쿡은 애플워치를 소개하면서, 애플워치가 가진 건강 관련 기술을 뽐냈다. 그것은 심장 박동수를 비롯한 걸음걸이의 수와 소비된 칼로리 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운동을 돕는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이었다. 애플은 애플워치를 하나의 작은 의료 연구소로 여긴 것이다.
- 애플은 건강 확인 기술이 주류 산업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2024년을 위한 매력적인 구상 방안을 가지고 있다. 애플워치를 통해 고혈압과 수면 무호흡을 감지하고, 에어팟의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청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또한 애플의 Vision Pro 헤드셋을 건강과 운동 장치에 접목하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 코치 서비스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 애플의 이상적인 미래는, 혈압이나 체온을 재기 위한 재래식 의료 도구가 사라지고, 의사의 도움을 줄이는 것이다. 팀 쿡은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하는 것은 애플이 인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건강 산업이 애플에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WeWork Plans to File for Bankruptcy as Early as Next Week**위워크, 이르면 다음 주 파산 신청 예상**

-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WeWork는 이르면 다음 주에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며, 이는 한때 47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오피스 공간 벤처 기업의 충격적인 반전이다.
- WeWork는 10월 2일 채권단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받았다. 이 기간에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WeWork는 파산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제 화요일, 기업관계자는 기업이 파산하기 전에, 주주들과 파산 관련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7일간의 유예기간을 허락받았다고 말했다.

WSJ 기사

WSJ: Prada Posts Higher Revenue With Growth in All Products, Most Regions**프라다, 모든 제품군에서 높은 수익 달성**

- 고급 패션업체인 프라다가 모든 제품군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 올해 첫 9개월간 수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어제 화요일, 프라다는 순수익이 33억4천만 유로(35억5천만 달러)로서, 고정 환율 기준으로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 전체 매출에 가장 크게 기여한 소매 매출은 평균 가격과 정가 판매량의 상승으로 17% 증가했으며, 도매 매출은 6% 성장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시장은 '美 기준금리 동결' 거의 확신..."매파적 동결될 듯"

**내일 새벽 美 FOMC 최대 관전 포인트는 파월의 메시지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성 평가'에 질문 세례 예상**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가오는 기준금리 결정 회의 때 이번이 없는 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매파적 동결'(Hawkish Pause)이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